

KBS Symphony Orchestra

**Masters
Series**

2023 KBS교향악단 마스터즈 시리즈 I

마렉 야노프스키의 베토벤 & 브람스

MAREK JANOWSKI

“수신료의 가치, 감동으로 전합니다”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23. 4. 22. SAT 17:00

베토벤
L. v. Beethoven

교향곡 제2번 D장조, Op.36
Symphony No.2 in D Major, Op.36

Ⓞ 32'

- 1악장 매우 느리게 - 힘차고 빠르게
Adagio Molto - Allegro con brio (10')
- 2악장 조금 느리게 (라르고보다 빠르게)
Larghetto (11')
- 3악장 스케르초 : 빠르게
Scherzo : Allegro (4')
- 4악장 매우 빠르게
Allegro Molto (7')

인터미션 Intermission

Ⓞ 15'

브람스
J. Brahms

교향곡 제2번 D장조, Op.73
Symphony No.2 in D Major, Op.73

Ⓞ 43'

- 1악장 빠르게 하되 지나치게 빠르지 않게
Allegro non troppo (18')
- 2악장 느리지만 지나치게 느리지 않게
Adagio non troppo (10')
- 3악장 조금 빠르고 우아하게 (조금 느리듯이)
Allegretto grazioso (Quasi andantino) (5')
- 4악장 빠르고 활발하게
Allegro con spirito (10')

Profile

A close-up portrait of an elderly man with thinning grey hair, wearing a dark blue suit, a light blue shirt, and a patterned tie. He is looking directly at the camera with a serious expression. His hands are resting on a surface in front of him.

MAREK JANOWSKI

© Felix Broede

마렉 야노프스키

Conductor

**야노프스키의 손끝에서 재탄생된 바그너는
그 어느 음반에서도 들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들려준다.**

BBC Music Magazine

마렉 야노프스키는 드레스덴 필하모니의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이다. 독일 정통 음악의 위대한 거장으로 손꼽히는 그는 바그너, 슈트라우스, 브루크너, 브람스, 힌데미트를 비롯하여 제2빈학파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석으로 정평이 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방대한 레퍼토리를 섭렵하여 다수의 걸출한 음반을 발매하였다. 특히 2016년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과 함께 펜타톤(Pentatone)에서 발매한 바그너의 <링 사이클> 전곡 실황 녹음 음반은 BBC 뮤직 매거진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바 있다.

베를린 필하모닉, WDR 쾰른 방송 교향악단, NDR 엘프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및 바이로이트 오케스트라,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오슬로 필하모닉, NHK 교향악단,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시카고 심포니 등에서 객원지휘자로 활약하였다.

바르샤바에서 태어나고 독일에서 수학한 마렉 야노프스키의 여정은 아헨, 쾰른, 뒤셀도르프, 함부르크의 어시스턴트 지휘자에서부터 프라이부르크 총괄 음악감독(1973-75), 도르트문트 총괄 음악감독(1975-79)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 유럽 유수의 오페라 극장에서 지휘봉을 잡은 그는 1970년대 후반부터 뉴욕 메트로 폴리탄 오페라, 바이에른 슈타츠오페를 비롯하여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함부르크, 빈, 베를린, 파리에 이르기까지 세계 유명 오페라 극장에서 맹활약하였다.

1984년부터 2000년까지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의 음악감독을 역임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오케스트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한 그는 1990년대부터 독일 정통 레퍼토리 지휘에 힘을 쏟았다. 쾰른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와 드레스덴 필하모니의 상임지휘자로 활동했으며, 베를린 도이치 교향악단의 수석 객원지휘자와 몬테카를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의 예술감독을 역임하였다. 최근 드레스덴 필하모니의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재임명되었다.

틀 잡고, 개성 녹인 교향곡 2번의 만남

KBS교향악단이 야심차게 선보이는 마스터즈 시리즈의 파격은 기존 공연 형식과의 차별성이다. 서곡-협주곡-교향곡으로 구성된 교향악단의 형식이 아닌, 지휘자의 장기를 발휘할 수 있는 교향곡만으로 음악의 '봉우리'를 만들거나, 협연자의 비르투오소적 감동을 이어갈 수 있는 여러 협주곡의 '산맥'이 이어진다는 점이다.

시리즈의 첫선을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지휘자 마렉 야노프스키가 음악사에 우뚝 솟은 거대한 봉우리인 베토벤과 브람스로 떠나는 대장정이다. 지휘자는 베토벤 교향곡 제2번과 브람스 교향곡 제2번을 'D장조'라는 조성과 '교향곡 제2번'이라는 공통점을 살려 두 곡을 만나게 한다. 더불어 두 작곡가가 자신의 첫 번째 교향곡을 통해 형성한 자신의 틀에 '개성'을 과감히 담은 제2번 교향곡이라는 것도 잊지 말자.



베토벤

교향곡 제2번 D장조, Op.36

L. v. Beethoven Symphony No.2 in D Major, Op.36

작곡연도 1802년

초 연 1803년 4월 5일, 오스트리아 빈

편 성 플루트2, 오보에2, 클라리넷2, 바순2, 호른2, 트럼펫2, 팀파니, 현5부

연주시간 약 32분

베토벤의 망령에 시달리며 첫 교향곡에 음표 하나 찍는데 망설였던 브람스와 달리 루트비히 판 베토벤(1770~1827)의 시작은 대담했다. 교향곡 제1번을 작곡할 무렵, 그 안에는 이미 교향곡 제2번의 설계도가 스며 있었다. 그만큼 탄력을 받았고 자신감이 넘쳤다. 하지만 직진하기보다 실내악과 소나타를 우회하며 두 번째 교향곡을 향해갔다. 그만큼 철두철미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교향곡 제2번의 음표를 찍었던 때는 1802년, 빈에서 가까운 하일리겐슈타트에서였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하일리겐슈타트 시기는 베토벤의 삶에서 절망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아니나 다를까. 그를 절망에 빠뜨리고 자살까지 생각하게 한 청력 상실이 시작되었다. 이 교향곡의 매력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살아 있는 자가 유서와 동시에 작품을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 교향곡이라는 소리의 그릇에 절망의 음표들을 충분히 담을 수 있었을 테지만, 베토벤은 교향곡 제2번을 ‘희망의 교향곡’으로 가져가니, 이는 역설의 곡 쓰기라 할 수 있겠다. 그만큼 이 곡에는 희망적이고 고양된 감정의 테마가 즐비하다. 특히 1악장 종결부의 클라이맥스는 아홉 곡에 달하는 베토벤의 교향곡 중 가장 환희에 넘치는 대목이다. 또한 2악장은 아름답고 서정적인 분위기로 인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베토벤 교향곡의 초기작에 해당하는 1번과 2번 중 많은 이가 교향곡 제1번을 높이 평가한다. 양식적으로 하이든과 모차르트가 모범적으로 보여준 고전주의 양식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향곡 제2번에서 베토벤은 고전의 전례에 얽매이지 않는다. 1악장의 서주는 전작에 비해 더욱 장대해졌고, 3악장은 미뉴에트 대신 스케르초를 사용하여 흐름을 전환한다. 목관악기의 활용도를 높여 음악의 표정을 다양하게 하는가 하면, 클라리넷의 사용도 어느 악곡에 비해 활발하다. 이러한 탈피의 미학과 함께 교향곡 제2번에는 앞서 말한 인간적인 드라마가 물씬 배어 있기에 이 교향곡은 여전히 애호되고 즐겨 연주된다.

1악장(Adagio Molto-Allegro con brio)은 느리게 시작하지만, 그 유속의 흐름에는 대담한 조바꿈이 꿈틀거린다. 특히 이 악장에는 ‘전환’의 미학이 잘 담겨 있으니 이를 잘 보면 좋다. 서주 마지막에 급속하게 하강하는 바이올린을 저음부의 현악기가 되받아 활기차게 이어가거나, 강력한 힘으로 소리의 산을 쌓고, 목관과 호른이 평화로운 행진곡 풍으로 다른 풍경을 이어가는 방식의 전환이다. 순식간에 여러 테마의 표정들이 연출되는 악장이다.

2악장(Larghetto)은 아름다운 선율로 유명하다. 현악군과 목관이 제1주제를 이끌어가고, 바이올린 파트가 제2주제로 그 감미로움을 이어간다. 이러한 주제들의 일부는 훗날 가사가 붙으며 가곡으로 탄생하기도 했다.

3악장(Scherzo : Allegro)은 베토벤이 처음으로 스케르초를 사용한 악장이다. 스케르초란 해학이나 희롱을 뜻한다. 목관이 부드럽고 여유 있게 흘러보내는 테마 사이로 현악기군이 타격감으로 응수하며 박자감을 형성해나간다. 베토벤의 웃음과 장난기를 살펴볼 수 있는 악장이다.

4악장(Allegro Molto)에는 방금 전 악장의 장난기가 가시지 않은 상태다. 훗날 탄생할 교향곡 제5번처럼 첫 동기의 강력한 제시로 시작하는 악장이다. 이 날카로우면서도 경쾌한 첫 질문이 중요한 동기로 작동한 뒤, 여러 악기가 이 질문을 풀어나간다. 그러다가 첼로가 들려주는 전원풍의 경과구를 거쳐 다시 유머러스한 표정을 드러낸다. 맺고 풀고, 질문 던지고 풀고. 극적인 환희에 차 있는 이 악장은 이러한 변증의 움직임을 통해 만들어가는 소리의 표정들이라 할 수 있겠다.

초연은 1803년 4월 5일에 빈 근교의 안 데어 빈 극장(Theater an der Wien)에서 피아노 협주곡 제3번과 함께 베토벤 자신의 지휘로 이뤄졌다. 청력을 잃어가던 그의 귀에 관중의 화답과 박수 소리는 어떻게 들렸을까.



브람스

교향곡 제2번 D장조, Op.73

J. Brahms Symphony No.2 in D Major, Op.73

작곡연도 1877년

초 연 1877년 12월 30일, 오스트리아 빈

편 성 플루트2, 오보에2, 클라리넷2, 바순2, 호른4, 트럼펫2, 트롬본3, 튜바, 팀파니, 현5부

연주시간 약 43분

1877년, 44세의 요하네스 브람스(1833~1897)는 건강이 좋지 않았다. 결국 요양을 목적으로 오스트리아의 알프스 지역에 있는 휴양지 피르차흐 암 뵘터제(Pörschach am Wörthersee)에 들러 많은 친구를 사귀며 행복한 날들을 보낸다. 편하고 행복한 일상 때문이었는지, 브람스는 진지하고 무거운 사유에 억눌려 곡을 쓰던 예전과 달리 곧바로 교향곡 작곡을 시작한다. 그러곤 4개월 만에 곡 하나를 똑딱 완성한다. 분명 예전과 다른 작곡 속도였다.

사실 브람스는 음악사의 19세기를 주름 잡던 낭만주의의 사도였지만, 신고전주의자로 분류될 만큼 고지식한 음악가였다. 고전주의, 그것은 정답과 해답은 과거에 있다는 믿음이자 신조였다. 결국 신고전주의라는 것은 그 믿음을 끝내 놓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음표를 찍는다는 것이었다.

특히 교향곡 작곡에 있어서 브람스가 보여준 고전주의를 향한 믿음은 대단했다. 그래서 그는 새 곡을 쓰는 것이란 곧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홉 곡의 교향곡 명작을 남긴 베토벤의 업적을 계승하는 것이라 믿었다. 그리하여 브람스가 자신의 첫 번째 교향곡을 마무리하는 데에는 무려 2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의 신중함은 곧 작품을 대변하는 예술적 무게가 되었다. 그래서 교향곡 제1번은 완벽한 구조를 지닌 걸작이 되었고, 베토벤의 아홉 교향곡의 뒤를 잇는다고 하여 '베토벤의 열 번째 교향곡'이라는 별명을 갖기도 했다.

잘 풀리지 않아 속을 썩었던 교향곡 제1번과 달리 교향곡 제2번부터 브람스는 마치 주문에서 풀려난 사람처럼 그 어렵다는 교향곡 작곡을 술술 풀어나갔다. 그래서 교향곡 제2번은 제1번을 완성한 다음 해인 1877년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

이 곡을 작곡한 지역의 분위기와 음악 자체가 지닌 차분한 흐름 때문에 많은 이들은 ‘브람스의 전원 교향곡’이라 부르기도 한다. 실제로 각 악장의 기초음이 3도씩 하향하며 긴장감을 이완하거나, 목관악기의 음색을 부드럽게 연출하고 있어 그가 남긴 4곡의 교향곡 중에 온화한 인상이 가장 짙은 곡이라 할 수 있겠다. 한마디로 전원에서 울려 퍼지는 목가(牧歌)의 교향곡인 셈이다.

1악장(Allegro non troppo)의 제1주제는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목가적인 분위기는 바이올린의 명량한 선율과 함께 사라지고, 그 자리에 비올라와 첼로가 제2주제를 노래한다. 어떤 이는 “저물어 가는 태양은 송고하고, 그 위에 진지한 빛이 떨어지는 풍경”이라는 시적인 언어로 이 악장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석양을 바라보며 홀로 상념에 잠기는 모습이 연상되는 악장이다.

2악장(Adagio non troppo)에선 브람스의 이미지와 직결되는 ‘우수에 찬 사색’이 짙게 배어 나온다.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장조 음계임에도 불구하고, 브람스는 그 속에서 마법처럼 고독의 느낌을 뽑아낸다. 혹자는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제8번에서 느껴질 법한 동유럽의 분위기가 이 악장에 배어 나온다고도 한다.

3악장(Allegretto grazioso)은 경쾌함과 동시에 곡의 저변을 맴도는 애수에 찬 감성이 느껴지는 악장이다. 특히 초반에 등장하는 제1주제가 그러하다. 앞서 이 교향곡에 대해 ‘전원 교향곡’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성격이 가장 강한 악장이다. 특히 현악기의 피치카토*를 배경으로 목관악기가 주선율을 연주하는 대목들이 인상적이다.

4악장(Allegro con spirito)은 제시부 - 전개부 - 재현부에 종결부가 붙은 소나타 형식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흐름의 변화와 드라마가 변화무쌍하다는 특징이 있다. 브람스가 작곡한 4개의 교향곡 중에 가장 찬란한 피날레를 보여주는 악장이라 하면 너무 과장일까. 어쩌면 브람스는 알프스 휴양지에서 누리던 즐거움을 이 악장에 몽땅 털어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 피날레 악장은 일상에 지친 우리에게 희망과 기대를 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교향곡 제2번의 초연은 1877년 12월 30일, 빈에서 한스 리히터의 지휘로 행해졌다. 이듬해 1월에는 라이프치히에서 브람스 자신의 지휘로 연주되었다고 한다.

글 | 송현민(음악평론가)

* 활을 쓰지 않고 손가락으로 현을 뜯는 방법

I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23. 4. 22. SAT 17:00
마렉 야노프스키의 베토벤 & 브람스



© Felix Broede

2 0 2 3

KBS교향악단 마스터즈 시리즈

KBS SYMPHONY ORCHESTRA MASTERS SERIES

II
롯데콘서트홀
니콜라이 루간스키의 라흐마니노프 전곡
2023. 12. 13. WED & 12. 15. FRI 20:00



© Marco Borggreve

KBS Symphony Orchestra

Masters Series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KBS교향악단



kbsymphony.org



youtube.com/kbsymphonyorchestra KBS교향악단



facebook.com/kbsymphony



[@kbsymphonyorchestra](https://instagram.com/kbsymphonyorchestra)



플러스친구 KBS교향악단(혹은 'kbssoforever')